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민선8기 전북도정 '경제 살리기 방점'

도지사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미완성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 도움 '주목'

김관영 당선인, "인수위 구성 핵심, 경제·민생"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전북도지사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못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은성수 인수위원장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원회는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인수위원장은 전북 출신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부 장관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위임됐다"고 했다.

인수위 명단에 따르면 기획조정분과장은 전주방송 사장을 역임한 신효균 군산대 석좌교수가, 경제산업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겸임한 김현숙 교수, 행정자치분과장에 대통령 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을 지낸 황태규 유석대 교수가 합체한다.

또 환경복지여성분과장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정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문화건설안전분과장에 한 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장을 역임한 한 동승 전주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추가로 대변인에 이정현 전JTBC 영

- 민선8기 도지사 인수위원 명단
- ▲위원장 - 은성수
  - ▲부위원장 - 김현숙
  - ▲기획조정분과- 분과장 신효균, 간사위원 안병일, 위원 이미영
  - ▲경제산업분과- 분과장 김현숙, 간사위원 홍호성, 위원 박예나·오성현
  - ▲행정자치분과- 분과장 황태규, 간사위원 정호윤, 위원 윤영숙·전영옥
  - ▲환경복지여성분과- 분과장 전정희, 간사위원 김현수, 위원 서영미·박진희
  - ▲문화건설안전분과- 분과장 한동승, 간사위원 송재호, 위원 정영훈·황지욱
  - ▲대변인- 이정현

어가 맡게 됐다.  
인수위원회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관영 당선인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 역할과 활동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저 또한 이번 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선을 하면서 미국과 국내의 여러 인수위원회 사례를 연구하며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최적의 인사를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8일 전북대 진수당 기인홀에서 미래농정·농촌활력 구상 MZ세대 타운홀미팅'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MZ세대의 역동성, 농촌 혁신 이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미래농정 주역인 농생명대 청년들이 전북의 미래농정·농촌활력 정책과 신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MZ세대 타운홀미팅'을 8일 전북대 진수당 기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북 미래농정·농촌활력 구상 MZ세대 타운홀미팅'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전북대 농생명대학 및 농생명대학 54대 학생회가 공동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진흥청 윤진우 박사의 '미래농업과 MZ세대의 잠재력'에 대한 주제발표와 라서현(취타인교육연구소 대표)의 주도로 120여 명의 대학생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인 윤진우 박사(농촌진흥청)는 "MZ세대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농업·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어우러지면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화, 예술, 식품,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다양한 가치를 농업농촌과 연계해 성공적 삶을 개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농업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MZ세대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만한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120여명이 참여한 타운홀미팅은 퍼실리테이터(도우미) 전문가인 라서현(취타인교육연구소 대표)의 주도로 진행됐다.

전북의 농업농촌 상황 및 개선과제,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방안,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토양 오염 개선방안, 축산 관련 문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 미래농정 주제를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소멸을 막는 중요한 척도이며, 전북도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MZ세대 청년들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구상해보는 경험은 그 토대를 만드는 초석이 아닐까 싶다. 청년들이 모이준 정책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김경수 기자

## 남원 사석리 고분군, 전북도 기념물 지정되나

학술·역사적 가치 인정받아  
도 문화재위원 검토 심의 통과

남원의 사석리 고분군이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된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대강면 남원사석리 고분군이 학술·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 심의를 통과했다.  
1987년 '남원 지방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된 사석리 고분군은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북쪽 구릉 서남부에 10여기의 봉토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돼 있다.  
사석리 고분군 학술조사는 2차례 이뤄졌다. 1차 발굴조사(3호분)에서는 황혈식 석실분(돌방무덤)의 봉토를 따라 주구(도랑시설)가 확인됐다.  
2차 발굴조사(8호분)에서는 황혈식 석실분이 익산지역의 왕릉급 무덤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조사된 고분 중 가장 큰 규모(길이 347cm·너비 185cm)란 사실이 밝혀져 당대 최상위 신분층



남원 사석리 고분군 전경  
의 묘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12일까지 부안서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제34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가 12일까지 부안 격포항 일원 및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열린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대회는 17개 시도에서 300여 명의 선수와 200여 명의 경기운영 및 임원들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선발전 을 겸해 수준 높은 실력의 선수들이 참가, 1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는 10일 대회 개막식이 열린다. 지난 7일 경기수역 개방과 경기정 계속 등 대회 사전준비를 한 후 8일부터 본격적으로 1일차 경기가 시작되며, 대회 4일차인 12일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대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일반 관람객의 관람도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며, "일반 관람객은 관람정 요트를 탑승을 하거나 격포항 방파제에서 시합을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https://www.sunchang.go.kr

"청년의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 귀농귀촌 순창 성공도시 순창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에서 꿈을 키우며 미래를 찾는 청년들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순창이 있습니다

순창군